



3면

미래동력 확보... 세법개정안 확정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음 6월 18일) 제2829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도 하반기 5대 경제정책

# 소비 진작 · 고용 지원에 '중점'

### 내수 활성화 · 일자리 확충 신규투자 확대 · 경제방역 장기발전 전략 마련 등 발표

전북도는 2021년 상반기 경제지표가 회복세에 있다고 분석하고,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소비진작과 고용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전북도가 분석한 상반기 경제지표를 보면 전년 대비 5월까지 광공업 생산 5.6% 출하 7.8% 수출 30.7% 등이 증가해 경제지표가 상승세다.

6월 중 고용률은 62.8%로 고용지표 개선도 뚜렷하고, 소비자심리지수 108.6 등 경기 전반에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전북도는 하반기 경제정책 목표를 '내일 신 성장하는 전북경제'로 정하고 5대 중점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5대 중점정책은 하반기 정부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사업분석을 기초로 ▲내수 활성화, ▲일자리 확충, ▲신규투자 확대, ▲성공적인 경제방역, ▲장기발전 전략 마련이다.

이외 지역경제 활력에 전력을 다하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코로나19가 지속된 상황에서도 경제분야에서 산업-공간-사람 중심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산업 분야에서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전기차 본격 생산, 공간 분야에서 ▲산단 대개조 선정,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단지 지정, 고용 분야에서 ▲전북군산형일자리 지정, ▲일자리정책 평가 최우수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더불어, 쿠팡 물류센터, 수소연료 분야의 일진하이솔루스 투산퓨얼셀 전기가차전지 분야 천보헬레스 등의 투자유치로 미래성장 핵심기업의 설비투자과 고용 촉진 기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하반기의 광공업 생산·수출은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나, 경기회복은 소비의 견조한 회복세가 관건이라고



'합장으로 기립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6일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 대종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발하면서, 코로나 4차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전북도는 하반기에 재난지원금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 상생형 일자리 확대, 산단 입지 강화, 투자확대 유도, 산업지도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 등 재정집행과 함께 소비촉진 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희망근로 등 공공 주도형 일자리를 추가 발굴해 고용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자발적 투자 및 투자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산단 입지 강화, 기술창업 지원계획 수립, 창업대진 등 체계적인 창업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신속한 백신접종 추진으로 안정적 방역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보듬자금 특례보증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방역을 탄탄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지도 고도화를 펼쳐나가는 한편 전북 경제포럼, 대선공약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신규시책으로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지니포럼 개최로 금융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도 추진한다.

우병기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정부정책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구조 대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들도 건전한 소비촉진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26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32개 지역서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 지역서점 책 사면 20% 할인

###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내달 17일부터 운영 홍지서림 · 호남문고 · 책방 토닥토닥 등 참여

전주시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거나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책을 살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의기투합한 지역서점들도 함께 힘을 내자며 손을 맞잡았다.

시는 26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32개 지역서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책콩20'은 시민들이 책의 매력에 '실용'해 '전주'가 책과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책사랑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친 시는 이날 협약에 참여한 지역서점들과 함께 다음 달 17일부터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의 운영을 시작한다.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전주시립도서관 회원이라면 12개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할 때 1권 당 50포인트(원)를, 이날 협약을 체결한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 도서 정가의 20%를 할인 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적립 및 사용 한도는 1인 월 5만 포인트다.

다만 포인트는 참고서, 문제집, 잡지, 전집 등 일부 도서를 제외한 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총직접투자비 3,0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서비스 가입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서점이나 대형서점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도서구입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책 읽는 문화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은 건강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책사랑 적립제도"라며 "인터넷 서점보다 혜택도 큰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참여서점은 ▲교래의 꿈 ▲문필서림 ▲물결서사 ▲민중서관 서신점 ▲북닷컴&세종 ▲서곡 월림문고 ▲서울문고 ▲세광도서 ▲소소당 ▲신문광서림 ▲신일서점 ▲웅진 ▲인후동 호남문고 ▲일도문고 ▲잡익은언어들 ▲전북서림 ▲전북서적 ▲종로서림 ▲중앙서림 ▲책방 놀이 ▲책방 토닥토닥 ▲청동북카페 ▲카포카 ▲합동총판세종문고 ▲해피북 ▲혁신책방-오래된 새길 ▲호남문고 ▲홍지서림 본점 · 송천 · 이중 · 효자점 ▲웅진서적 효자점 등이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